

# 혜능 선사 법향에 한국 구도자들이 다시 감동



홍콩 각수사 수봉선원을 방문한 연수단 일행을 재가불자들이 맞이하고 있다. 이날 수봉선원 정진 현장은 연수단 스님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달마 대사가 물길을 틈 세심정을 살펴보는 연수단



단장 지현 스님이 각수사에서 송산 스님 영정에 분향하고있다.

## 불교문화사업단, 광저우 광효사 이어 홍콩 각수사 참배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이 구랍 12~17일 중국 광저우·홍콩 일대에서 진행한 제7회 2011 템플스테이 운영자 해외연수는 템플스테이 실무자와 운영자 스님들이 한국불교 세계화의 현장을 느끼고 템플스테이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불교문화사업단 해외연수단은 13일 <육조단경>을 설한 대감사, 14일 오조 홍인 대사의 의발을 가지고 몸을 피한 혜능 선사가 15년 만에 삭발 수계하고 구도의 길을 걷기 시작한 광효사, 15일 마카오 성바오로 성당 16일 홍콩 각수사 수봉선원, 포우린 사원 등을 둘러보았다.

홍콩 각수사 수봉선원을 방문한 연수단 일행은 재가불자들이 맞이하고 있다. 이날 수봉선원 정진 현장은 연수단 스님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혜능 선사가 머리를 깎게 된 일화가 바로 유명한 풍번문답(風幡問答)이다.

당시 범사(范 廣)에서 진행된 인종 법사의 열반경 강연에서 참법(參法)이 흔들려 대중 스님들이 바람과 깃대의 흔들림으로 분란이 일자 혜능 선사가 아음이 움직이는 것이라 일침한 것이다. 이를 본 인종 법사가 자신의 자리를 내주며 혜능 선사를 스승의 예로 대했고, 혜능

## '육조단경' 사경 프로그램 참관 광효사 명생 스님과 선문담

선사가 아직 계를 받지 못함에 수계의식을 열었다.

광효사 정보박물관은 이와 관련된 다양한 불교문화재와 함께 불교체험 공간이 함께 마련돼 있었다. 연수단은 중국불자들이 <육조단경>을 사경하는 모습을 보며 불교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연수단은 의발탑과 달마에 앞서 중국에 왔던 인도 승려 지락 삼장이 502년 심은 중국 최초 보리수 등을 둘러보고 접견실에서 광효사 주지 명생 스님을 만났다.

광효사 주지 명생 스님과 환담도 한 중불교의 우호 증진과 함께 풍번문답을 비롯한 선문답을 주제로 대화가 오갔다. 중국불교협회 부회장이기도 한 명생 스님에게 단장 지현 스님은 중국불교협회 차원의 한중불교의 우호 증진과 템플스테이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명생 스님은 한국 템플스테이 사업을 비롯한 한국불교 세계화에 대한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

환담에서는 광효사 비풍비번(非風非幡) 선문답을 주제로 한 대화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부단장 주경 스님은 명생 스님에게 "바람도 깃대도 마음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문답을 건넸고 명생 스님은 "모두가 없기 때문"이라고 웃으며 답했다.

광효사를 방문하기에 앞서 연수단은 짧은 시간 혜능 선사가 시골벽적한 시장 통에서 유학자들의 요청에 의해 일반인 대상으로 설립한 대감사를 방문했다. 현대의 도심포교당이다.

혜능 선사가 이 당시 대감사에서 설한 것을 모은 것이 바로 <육조단경>이다. <육조단경>은 부처의 가르침에만 붙는 '경'(經)이 붙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혜능 선사의 선종에서의 위치를 가늠케 한다.

광저우 시장 한복판 사찰에서 선사사의 목소리는 대중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다.

송산 스님의 한국불교 세계화 현장 연수단은 한국불교 세계화의 현장도 돌아왔다. 연수단은 구랍 16일 마지막 일정으로 홍콩 란타우섬에 위치한 각수사 수봉선원을 찾았다.

송산 스님의 사리탑이 있는 각수사는 홍콩 대관 스님이 주지 스님으로 있으며 수봉선원과 함께 홍콩에 위치한 선종 사

## 수봉선원 송산 스님 뜻 이은 현장 재가불자 힘모아 선원 건립 감동

찰 중 하나다.

란타우 섬 산으로 둘러싸이고 바다 멀리 마카오가 내려다보이는 수봉선원은 송산 스님의 생전 국제포교에 대한 많은 것들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머나먼 홍콩 땅에서 세계 각국에서 온 많은 외국인 스님과 외국인 재가불자들이 한국불교를 배우며 정진하는 모습은 연수단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1966년 일본 도쿄 흥법원을 시작으로 1969년 홍콩에 선원을 설립, 이어 1972년 미국 등 해외 각국에서 전법의 길에 오른 송산 스님의 대원력을

연수단은 직접 느꼈다.

각수사 재가불자들은 연수단 스님들에게 보시금을 각각 전달했다. 재가자들이 스님들을 외호하고 공양을 올린다는 불교 전통이었다.

원주 원심 스님은 "러시아 등에서 여러 곳에서 온 스님들과 재가자 10여 명이 송산 스님의 뜻을 이어 받아 용맹정진 하고 있다. 각수사 수봉선원은 재가불자들의 심시일발 공양으로 지어진 곳으로 승보 공양의 정신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시금을 받는 스님들과 올리는 재가불자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공양의 참 의미를 되짚었다. 연수단은 각수사에 준비한 공양금을 전달했다. 이어 연수단 스님들은 송산 스님 사리탑을 참배했다. 먼 이국땅에서 송산 스님의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뜻을 이어지고 있었다.

백담사 백거 스님은 "해외 현장에서 부단히 노력하는 불자들이 보니 많은 것을 느꼈다. 단순한 불교 체험을 넘어 템플스테이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참가소감을 말했다.

국제선센터 보관 스님은 "한국불교 세계화에 갈 길이 멀다.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통해 보다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불교를 접하고 또 배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저우=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조계종 문화포교에 언제나 협력할 것

광효사 주지 명생 스님

"혜능 선사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광효사와 조계종은 때려야 떨 수 없는 관계입니다. 조계종의 방문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광효사 주지 명생 스님은 구랍 13일 연수단과의 만남에서 환영사를 밝혔다.

스님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한중일불교대회 중 서울 신정동 국제선센터에서 진행된 템플스테이 체험담을 털어냈다.

명생 스님은 "교회가 사방에 있는 가운데서도 7층 건물의 사찰이 위용이 대단했다. 한국 템플스테이를 비롯한 다양한 포교, 대중화 사업이 활성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지현 스님이 "문화사업 전반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지"고 말하자 "명생 스님은 "중국 불교협회와 광동성불교협회가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창사 19주년 기념

#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 미안마

- ◇ 미안마 성지순례 출발 : 2월 7일, 2월 23일
- ◇ 미안마 완전정복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해호 7일 1,920,000원 (유류할증료 불포함)

## 3월 출발

- ◇ 양곤 | 바간 | 해호 6일 - A형 1,690,000원 B형 1,650,000원
-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6일 - A형 1,690,000원 B형 1,650,000원
- ◇ 양곤 | 바간 | 해호 | 짜익티오 7일 - A형 1,840,000원 B형 1,790,000원
-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짜익티오 7일 - A형 1,840,000원 B형 1,790,000원

\* 전 일정 특급호텔, 가이드 기사 팁, 호스카 포함 / 유류할증료 불포함

- 인도 완벽 8대성지 9일 / 10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전통불교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장사 | 장가계 | 원가계 | 천문산 5~6일 (요금문의)

미안마 종교성 관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

특허등록(30-0607637)

## 法性圖所持者成就一切萬法消滅一切諸障礙

법성도는 心지요체 정법입니다. 혹 方便으로 사용하고있는 符籍보다는 천만배 이상 靈驗과 隨乘한 공덕이 있습니다. 회화나무 꽃으로 수제품 딱종이에 엄격한 槐黃紙에 鏡面朱砂로만 특수 제작하여 불자님들께 護身 (휴대)용으로 엽가 普及합니다.



호신용 액자용 부처님 점안 복장용 윤달 예수제용 등 주문제작합니다 槐黃紙 원지 판매합니다.

법성원 : 051)532-1113 / 010-8258-9963 홈페이지 : www.bswon.com 은행계좌.837026-56-062884 농협 이상경 / 전국 유명불교 용품점에서도 구입가능